

釜山地域에 있어 日本投資企業의 進出現況과 經營環境에 關한 調查研究

金炳坤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琴性根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 례

- | | |
|-----------------------------|----------------------------|
| 1. 서론 | 4. 부산지역의 일본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방안 |
| 2.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
| 3. 부산지역의 일본투자기업 경영환경에 관한 조사 | 5. 요약 및 결론 |

1. 서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전반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에서는 1998년 9월 17일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KOTRA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설치·운영하는 등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1999년 5월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세계도시 부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하에 부산시에 외자유치 전담부서를 두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 신항만 개발 등 부산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부산지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여전히 부산지역에서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진출해 있는 일본투자기업들도 부산지역에서의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특히 부산지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부산지역의 경영환경을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투자기업의 부산지역 진출현황을 살펴보고,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방문인터뷰조사를 통해 부산지역의 경영환경을 평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분석한다.

2.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1)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추이

부산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현황을 보면 1999년 6억 9,472만달러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전년도 대비 37.6%가 감소한 2억 5,244만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다.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으로 나누어 보면, 1998년과 2000년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2001년의 경우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의 투자비중이 각각 4.4% : 95.6%였고, 2002년에는 23.8% : 76.2%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추이

(단위 : 만달러,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증감율
1967~1997	87	38,263	86	56,231	173	94,494	-
1998	13	4,970	22	1,248	35	6,217	-
1999	26	916	33	68,556	59	69,472	1,017.5
2000	27	29,287	56	26,008	83	55,295	-20.4
2001	30	1,778	67	38,675	97	40,453	-26.8
2002	19	6,019	51	19,226	70	25,244	-37.6

주 : 민간부문의 투자 추이임.

자료 :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

2) 외국인투자기업 국가별 투자현황

부산지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자본출자기업 포함)은 2002년 말 현재 총 390개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투자기업이 152개사(39.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55개사), 러시아(41개사), 미국(37개사), 독일(37개사) 등의 순이다.

<표 2>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나라별 현황(2002년 말 현재)

(단위 : 개, %)

구분	기업수		구분	기업수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일본	152	39.0	핀란드	2	0.5
중국	55	14.1	캐나다	2	0.5
러시아	41	10.5	네팔	1	0.3
미국	37	9.5	룩셈부르크	1	0.3
독일	24	6.2	멕시코	1	0.3
네덜란드	9	2.3	사우디	1	0.3
홍콩	9	2.3	스웨덴	1	0.3
노르웨이	7	1.8	스위스	1	0.3
싱가포르	7	1.8	스페인	1	0.3
덴마크	6	1.5	아일랜드	1	0.3
영국	6	1.5	이탈리아	1	0.3
오스트레일리아	6	1.5	케이만군도	1	0.3
말레이시아	5	1.3	타이	1	0.3
파키스탄	3	0.8	파나마	1	0.3
대만	2	0.5	프랑스	1	0.3
버진아일랜드	2	0.5	기타	2	0.5
			합계	390	100.0

주 : 기타에는 IFC 등 포함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정리

3) 외국인투자기업의 나라별 투자규모 현황

2002년 말 현재 부산지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투자규모는 19억 5,171만 달러인데, 이중에서 일본이 가장 많은 6억 4,600만달러로 33.1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4억 6,688만달러(23.92%), 네덜란드 3억 7,805만달러(19.37%), 오스트레일리아 2억 5,435만달러(13.03%)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건당 투자규모는 평균 500만달러이다. 총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일본투자기업은 건당 평균규모가 425만달러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당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로 평균 4,239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4,201만달러, 말레이시아 1,621만달러, 미국 1,262만달러, 영국 1,231만달러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표 3>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국별 투자규모 현황(2002년 말 현재)

(단위 : 만달러, %)

구분	총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구분	총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구성비				구성비	
일본	64,600	33.10	425	노르웨이	77	0.04	11
미국	46,688	23.92	1,262	스웨덴	77	0.04	77
네덜란드	37,805	19.37	4,201	핀란드	68	0.03	34
오스트레일리아	25,435	13.03	4,239	스페인	38	0.02	38
말레이시아	8,103	4.15	1,621	대만	37	0.02	18
영국	7,384	3.78	1,231	타이	30	0.02	30
아일랜드	1,000	0.51	1,000	버진아일랜드	18	0.01	9
독일	993	0.51	41	프랑스	18	0.01	18
홍콩	591	0.30	66	파키스탄	16	0.01	5
중국	460	0.24	8	사우디	10	0.01	10
싱가포르	459	0.24	66	멕시코	6	0.00	6
파나마	380	0.19	380	룩셈부르크	5	0.00	5
러시아	321	0.16	8	케이만군도	5	0.00	5
덴마크	305	0.16	51	네팔	5	0.00	5
캐나다	123	0.06	62	이탈리아	4	0.00	4
스위스	84	0.04	84	기타	30	0.02	15
				합계	195,171	100.0	500

주 : 기타에는 IFC 등 포함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정리

4) 일본투자기업의 업종별 투자현황

부산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투자기업(자본출자기업 포함)은 2002년 말 현재 152개사로 동남권 타 지역의 울산 31개사, 경남 109개사보다 많은 상황이다. 진출업종을 보면, 울산에는 화학업종(11개사)이, 경남에는 전기·전자(25개사), 기계(13개사), 시계·정밀·광학기기(13개사), 자동차·부품(12개사)업종의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데 비해 부산에는 무역업종(34개사)과 기타 서비스업종(22개사)의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에 속하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패션, 신발, 수산·가공 등의 업종에 대한 일본기업의 진출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4> 일본투자기업의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투자업종 현황

(단위 : 개,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합계	
	개	구성비	개	구성비	개	구성비	개	구성비
수산·가공	6	3.9	-	-	3	2.8	9	3.1
음·식료	6	3.9	-	-	3	2.8	9	3.1
섬유·의복	4	2.6	-	-	2	1.8	6	2.1
신발	4	2.6	-	-	-	-	4	1.4
종이·제지	-	-	-	-	1	0.9	1	0.3
화학	11	7.2	11	35.5	10	9.2	32	11.0
석유	1	0.7	1	3.2	-	-	2	0.7
비금속제품	1	0.7	-	-	1	0.9	2	0.7
금속제품	9	5.9	4	12.9	10	9.2	23	7.8
기계	9	5.9	1	3.2	13	11.9	23	7.8
전기·전자	4	2.6	2	6.5	25	22.9	31	10.6
자동차·부품	8	5.3	5	16.1	12	11.0	25	8.6
조선·기자재	9	5.9	1	3.2	4	3.7	14	4.8
기타 운송용기기	-	-	-	-	1	0.9	1	0.3
시계·정밀·광학기기	1	0.7	-	-	13	11.9	14	4.8
기타 제조업	5	3.3	1	3.2	5	4.6	11	3.8
운수 및 창고	6	3.9	2	6.5	-	-	8	2.7
건설	5	3.3	-	-	-	-	5	1.7
도소매	7	4.6	-	-	-	-	7	2.4
무역	34	22.5	1	3.2	2	1.8	37	12.7
기타 서비스	22	14.5	2	6.5	4	3.7	28	9.6
합계	152	100.0	31	100.0	109	100.0	292	100.0

주 : 기타서비스업에는 관광, 소프트웨어개발, 호텔, 금융 등 포함
 자료 : 부산광역시(2002년 말 현재), 울산상공회의소(2002년 말 현재), 경상남도(2000년 7월말 현재)

3. 부산지역의 일본투자기업 경영환경에 관한 조사

1) 조사개요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투자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기업은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일본투자기업 152개 기업 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3월 10(월)부터 2003년 3월 22일(토)기간 중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직접방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총 31개로 응답률은

44.3%였다.

인터뷰조사는 일본상인회 등 일본인 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산지역의 경영환경에 대해 청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결과

1) 응답기업 현황

① 업종별 분포

설문 응답기업(31개)의 업종별 분포는 무역업종과 기타서비스업종이 각각 16.1%, 수산·가공업종, 기계업종이 각각 12.9% 등이었다.

<표 5>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 개, %)

업종	기업수	비중	업종	기업수	비중
수산·가공	4	12.9	자동차·부품	2	6.5
섬유·의복	1	3.2	조선·기자재	3	9.7
비금속제품	1	3.2	도소매	3	9.7
기계	4	12.9	무역	5	16.1
전기·전자	3	9.7	기타서비스	5	16.1
			합계	31	100.0

② 기업규모별 분포

설문 응답기업의 매출액 및 자본금 규모를 보면, 매출액은 10~50억원 미만의 기업이 32.2%(10개)로 가장 많고, 자본금규모는 10억원 미만이 17개사로 54.8%를 차지하였다.

<표 6> 응답기업의 매출액 및 자본금 규모

(단위 : 개, %)

구분	매출액		자본금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10억원 미만	7	22.6	17	54.8
10~50억원 미만	10	32.2	5	16.1
50~100억원 미만	6	19.4	2	6.5
100~200억원 미만	1	3.2	1	3.2
200~500억원 미만	2	6.5	0	0.0
500~1,000억원 미만	0	0.0	0	0.0
1,000억원 이상	0	0.0	0	0.0
무응답	5	16.1	6	19.4
합계	31	100.0	31	100.0

③ 종업원 규모별 분포

설문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분포를 보면, 10명 미만이 45.2%(14개 기업), 10~20명 미만이 19.4%(6개 기업), 50~100명 미만이 12.9%(4개 기업)를 차지하였다.

<표 7>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 분포현황

(단위 : 개, %)

구 분	기업수	비 중
10명 미만	14	45.2
10~20명 미만	6	19.4
20~50명 미만	3	9.7
50~100명 미만	4	12.9
100~300명 미만	2	6.4
300명 이상	0	0.0
무응답	2	6.4
합 계	31	100.0

④ 부산지역에서의 사업기간별 분포

설문 응답기업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32.3%(10개 사)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1~5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각 29.0%(9개 기업)를 차지하였다.

<표 8> 응답기업의 부산지역에서의 사업기간

(단위 : 개, %)

구분	기업수	비 중
1년 미만	3	9.7
1~5년 미만	9	29.0
5~10년 미만	9	29.0
10년 이상	10	32.3
합 계	31	100.0

⑤ 일본투자자의 투자형태

설문 응답기업의 부산지역내 투자형태는 합작투자과 자본출자(경영참가 없음) 형태가 각각 32.3%(10개사)로 가장 많았고, 100% 전액출자한 기업도 25.8%(8개사)를 차지하였다.

<표 9> 일본투자자의 투자 형태

(단위 : 개, %)

구분	기업수	비 중
합작투자	10	32.3
전액(100%)출자	8	25.8
자본출자(경영참여 없음)	10	32.3
기술제휴	1	3.2
기 타	1	3.2
무응답	1	3.2
합 계	31	100.0

(2) 조사결과

① 주요 사업대상 국가

부산지역 일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주요 수요국가는 한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61.3%, 일본 32.3%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중우선순위⁴⁾ 기준으로 볼 때도 한국과 일본이 각각 37.9%, 29.4%로 주요 사업대상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인투자자들이 부산지역에 투자하는 목적이 한국의 국내시장과 일본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부산지역 일본투자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주요 수요국가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 중	가중기업수	비 중
한 국	19	61.3	151	37.9
일 본	10	32.3	117	29.4
중 국	0	0.0	43	10.8
미 국	1	3.2	39	9.8
동 남 아	1	3.2	23	5.8
유 럽	0	0.0	25	6.3
기 타	0	0.0	0	0.0
합 계	31	100.0	398	100.0

4) 가중우선순위는 항목별 우선순위에 가중치를 반영한 것으로, 각 보기(항목)에 응답한 우선순위에 해당 우선순위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한 값(가중기업수)을 나타낸다.

예 : 2개의 보기(항목)를 가진 특정 문항에 대해 4개 기업이 응답하였는데 1번 항목에 3개기업이 1순위, 1개 기업이 2순위를 응답하였고, 2번 항목에 1개 기업이 1순위, 3개 기업이 2순위를 응답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항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별 가중치는 1순위에 2, 2순위에 1을 부여하여 가중기업수를 계산할 수 있다. 1번 항목의 가중기업수는 7개(=3개×2+1개×1)가 되고, 2번 항목의 가중기업수는 5개(=1개×2+3개×1)가 된다.

② 한국내 주요 사업대상 지역

한국내 주요 사업대상지역으로는 1순위 응답기준으로 볼 때, 부산지역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우선순위 기준으로 볼 때는 부산과 경남지역이 각각 33.2%와 2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부산지역 일본투자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국내 주요 수요지역

(단위 : 개, %)

구 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부 산	12	38.7	108	33.2
경 남	5	16.1	68	20.9
울 산	0	0.0	45	13.8
서울, 수도권	4	12.9	47	14.5
전국 균등	6	19.3	41	12.7
기 타	2	6.5	16	4.9
무응답	2	6.5	-	-
합 계	31	100.0	325	100.0

③ 부산지역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부산지역에 투자한 일본투자자들은 주로 자체 시장조사에 의해 투자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기준으로 볼 때 「자체 시장조사」에 의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41.9%(13개사)를 차지하였다. 가중우선순위 기준에서도 「자체 시장조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 부산지역 투자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자체 시장조사	13	41.9	92	43.2
2. 기진출 기업의 권유	5	16.1	44	20.7
3. 투자기업소재국 관련기관의 권유	0	0.0	23	10.8
4. 부산의 홍보 및 설명회	0	0.0	1	0.5
5.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지명도	0	0.0	2	0.9
6. 기 타	8	25.9	51	23.9
무응답	5	16.1	-	-
합 계	31	100.0	213	100.0

④ 부산지역에 진출한 동기

일본인투자자들이 부산지역 투자한 주요 동기는 시장잠재력과 물류의 유리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시장잠재력」이 29.0%(9개사)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류의 유리점」이 25.8%(8개사)였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도 각각 22.1%와 2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부산지역에의 진출동기

(단위 : 개, %)

구 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시장잠재력	9	29.0	137	22.1
2. 낮은 생산비용	1	3.2	50	8.1
3. 원·부자재조달의 용이성	1	3.2	60	9.7
4. 인력수급의 용이성	2	6.5	42	6.8
5. 기술확보의 용이성	1	3.2	66	10.6
6. 주변국가 진출기반확보	2	6.5	68	11.0
7. 물류의 유리점	8	25.8	124	20.0
8. 세계상의 혜택	0	0.0	12	1.9
9. 사회간접자본시설	2	6.5	31	5.0
10. 기 타	3	9.7	30	4.8
무응답	2	6.5	-	-
합 계	31	100.0	620	100.0

⑤ 부산지역 경영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

일본투자기업들은 서울·수도권에 비하여 부산지역의 상대적 경영환경 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8개부문(시장환경, 노동환경, 부동산환경, 금융환경, 행정서비스환경, 조세환경, 교통환경, 생활환경)에 대해 서울·수도권을 3점으로 가정했을 때 부산지역의 상대적 점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경영환경은 평균 2.51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설문문항에 포함된 8개 부문 중에서 교통환경(3.10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수도권에 비해 부산지역의 경영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금융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이 각각 2.05점과 2.07점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4> 서울·수도권 대비 부산지역의 경영환경 평가점수

구분	평점	구분	평점
시장환경	2.21	행정서비스환경	2.63
노동환경	2.52	조세환경	2.59
부동산환경	2.93	교통환경	3.10
금융환경	2.05	생활환경	2.07
		평 균	2.51

주 : 서울·수도권지역의 환경을 3점으로 가정했을 때 부산지역의 상대적 평가점수임

⑥ 부산지역에서의 경영활동 애로요인

부산지역에서 일본투자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노동환경」과 「금융환경」, 「시장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노동환경」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6%(7개사)였고, 다음으로 「금융환경」, 「시장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4%(6개사)와 16.1%(5개사)였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는 「노동환경」 17.6%, 「시장환경」 15.6%, 「금융환경」 15.4% 등의 순이었다.

<표 15> 부산지역 경영활동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시장환경	5	16.1	110	15.6
2. 노동환경	7	22.6	124	17.6
3. 부동산환경	1	3.2	75	10.7
4. 금융환경	6	19.4	108	15.4
5. 행정서비스환경	3	9.7	71	10.1
6. 조세환경	1	3.2	72	10.2
7. 교통환경	3	9.7	96	13.7
8. 생활환경	0	0.0	47	6.7
무응답	5	16.1	-	-
합 계	31	100.0	703	100.0

□ 시장환경관련 애로요인

시장환경과 관련하여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산과 인접지역의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배후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부족하며, 사업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부산과 인접지역 시장규모의 협소」가 32.3%(10개사), 「사업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12.9%(4개사)를 차지하였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과 인접지역 시장규모의 협소」가 23.5%, 「배후시장의 확장 가능성 부족」

이 17.6%, 「사업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17.1%로 나타났다.

<표 16> 시장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부산과 인접지역 시장규모의 협소	10	32.3	107	23.5
2. 배후시장의 확장 가능성 부족	1	3.2	80	17.6
3.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2	6.5	49	10.8
4. 비즈니스관행(리베이트 등)	3	9.7	45	9.9
5. 사업정보 획득의 어려움	4	12.9	78	17.1
6. 기술도입 및 확보의 어려움	3	9.6	39	8.6
7. 원부자재 조달곤란	1	3.2	41	9.0
8. 기 타	2	6.5	16	3.5
무응답	5	16.1	-	-
합 계	31	100.0	455	100.0

노동환경관련 애로요인

노동환경의 경우, 높은 임금수준과 일반직 노동인력의 수급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임금수준」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10개사)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직 노동인력의 수급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6%(7개사)였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노동인력의 수급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임금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8%였다.

<표 17> 노동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높은 임금수준	10	32.3	120	27.8
2. 일반직 노동인력의 수급 어려움	7	22.6	145	33.6
3. 관리직 인력의 확보 어려움	2	6.5	55	12.7
4. 대립적인 노사관계	1	3.2	21	4.9
5.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0	0.0	26	6.0
6. 낮은 노동력의 질	3	9.7	33	7.6
7. 노동관련 규제의 과다(근로기준법 등)	1	3.2	25	5.8
8. 기 타	0	0.0	7	1.5
무응답	7	22.5	-	-
합 계	31	100.0	432	100.0

□ 부동산환경관련 애로요인

부산지역 부동산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의 경우, 높은 토지 매입가격과 높은 토지 및 사무실 임차비용이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토지매입가격」과 「높은 토지 및 사무실 임차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0%(9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각각 32.9%와 27.1%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8> 부동산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높은 토지 매입가격	9	29.0	91	32.9
2. 부지확보의 어려움	2	6.5	44	15.8
3. 토지 취득 규제	3	9.7	31	11.2
4. 임차 부지 및 사무공간 부족	3	9.7	36	13.0
5. 높은 토지 및 사무실 임차비용	9	29.0	75	27.1
6. 기 타	0	0.0	0	0.0
무응답	5	16.1	-	-
합 계	31	100.0	277	100.0

□ 금융환경관련 애로요인

부산지역 금융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복잡한 금융기관의 이용절차가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38.7%(12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30.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복잡한 금융기관의 이용절차」가 24.9%를 보였다.

<표 19> 금융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자금조달의 어려움	12	38.7	115	30.2
2. 복잡한 금융기관의 이용절차	4	12.9	95	24.9
3. 역내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지원 부족	2	6.5	38	10.0
4. 금융정보 획득 어려움	1	3.2	25	6.6
5. 해외금융 이용 불편	4	12.9	39	10.2
6. 비합리적인 금융관행(담보대출, 어음발행 등)	3	9.7	69	18.1
무응답	5	16.1	-	-
합 계	31	100.0	381	100.0

행정서비스환경관련 애로요인

부산지역 행정서비스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들은 복잡한 회사설립 절차와 행정기관의 빈번한 서류제출요구 등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복잡한 회사설립 절차」가 32.3%(10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회사 설립절차」가 2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빈번한 서류제출요구」가 17.4%를 보였다.

<표 20> 행정서비스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복잡한 회사 설립절차	10	32.3	118	28.9
2. 국내지사 설치규제	1	3.2	32	7.8
3. 업종 및 서비스 제한규제	3	9.6	52	12.7
4. 주식취득 및 양도제한 규제	1	3.2	37	9.2
5. 행정기관의 빈번한 서류제출요구	2	6.5	71	17.4
6. 행정기관의 경영간섭 과다	1	3.2	40	9.8
7. 지적재산권보호 부족	2	6.5	24	5.9
8. 출입국 서비스 미흡	2	6.5	32	7.8
9. 부정부패	0	0.0	2	0.5
무응답	9	29.0	-	-
합 계	31	100.0	408	100.0

조세환경관련 애로요인

부산지역 조세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의 경우, 높은 법인세율, 복잡한 세금 체계, 복잡한 세무처리 절차 등이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법인세율」이 45.2%(14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잡한 세금 체계」가 22.6%(7개사)로 나타났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높은 법인세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복잡한 세무처리 절차」가 23.7%, 「복잡한 세금 체계」가 20.3% 등의 순이었다.

<표 21> 조세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높은 법인세율	14	45.2	162	30.7
2. 높은 개인소득세율	1	3.2	51	9.7
3. 복잡한 세금 체계	7	22.6	107	20.3
4. 빈번한 세무조사 실시	0	0.0	10	1.9
5.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미흡	0	0.0	5	0.9
6. 복잡한 세무처리 절차	4	12.9	125	23.7
7. 준조세 성격의 부대비용 과다	0	0.0	32	6.1
8. 불공평한 세금 부과	0	0.0	27	5.1
9. 기 타	1	3.2	9	1.6
무응답	4	12.9	-	-
합 계	31	100.0	528	100.0

□ 교통환경관련 애로요인

부산지역 교통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에 있어 복잡한 시내교통과 국제항공노선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복잡한 시내교통」이 38.8%(12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항공노선 부족」이 25.8%(8개사)로 나타났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 하는 경우에도 각각 38.4%와 23.7%로 복잡한 시내교통과 국제항공노선 부족이 주요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교통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항만운송 노선 부족	1	3.2	32	8.9
2. 국내항공 노선 부족	0	0.0	15	4.2
3. 국제항공 노선 부족	8	25.8	85	23.7
4. 도로운송 노선 부족	1	3.2	45	12.5
5. 철도노선 부족	0	0.0	6	1.7
6. 복잡한 시내교통	12	38.8	138	38.4
7. 부산과 인접지역간 교통체계미흡	1	3.2	38	10.6
무응답	8	25.8	-	-
합 계	31	100.0	359	100.0

□ 생활환경관련 애로요인

부산지역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에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의 제공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9.0%(9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중우선순위를 기준 하는 경우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6.9%,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제공 부족」이 17.6%였다.

<표 23> 생활환경관련 애로요인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언어소통의 어려움	9	29.0	78	26.9
2.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분위기	1	3.2	31	10.7
3. 외국인 교육시설 부족	1	3.2	28	9.7
4. 외국인 의료시설 부족	1	3.2	32	11.0
5. 환경오염	3	9.7	39	13.4
6.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제공 부족	2	6.6	51	17.6
7. 높은 생활비용	1	3.2	31	10.7
무응답	13	41.9	-	-
합 계	31	100.0	290	100.0

⑦ 타 지역으로의 이전계획 유무

설문 응답기업 중 22.6%(7개사)가 부산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는 시장성 확보, 원활한 인력수급, 토지 및 사무실 임차비용 절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성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이나 수원 등의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임차비용 절감이나 원활한 인력수급을 원하는 기업들은 경남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부산지역 일본투자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계획 유무

(단위 : 개, %)

구분	기업수	비 중
이전계획 있음	7	22.6
이전계획 없음	24	77.4
합 계	31	100.0

⑧ 부산시 자체시행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산시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한다」와 「들어보았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그렇지만 고용보조금 지원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22.6%(7개사)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다른 인센티브제도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부산시 자체시행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개, %)

구분	용지매입비 지원		고용보조금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건설탕비용 지원		외국인학교 지원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잘 알고 있다	2	6.5	7	22.6	7	22.6	0	0.0	0	0.0
들어보았지만 내 용은 잘 모른다	10	32.2	12	38.7	10	32.2	14	45.2	8	25.8
전혀 알지 못한다	17	54.8	10	32.2	12	38.7	15	48.3	21	67.7
무응답	2	6.5	2	6.5	2	6.5	2	6.5	2	6.5
합계	31	100.0	31	100.0	31	100.0	31	100.0	31	100.0

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시 정책에 대한 평가

<표 2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시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분	1순위		가중우선순위	
	기업수	비중	가중기업수	비중
1. 경제자유구역 지정	7	22.6	292	10.4
2. 관세자유지역 확대	6	19.4	354	12.6
3.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	3	9.7	220	7.9
4. 문현금융단지 조성	2	6.5	89	3.2
5.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구축	0	0.0	90	3.2
6. 센텀시티 조성	0	0.0	61	2.2
7. 산업단지 확대 조성	3	9.7	195	7.0
8. 임대공장 건립 확대	1	3.2	103	3.7
9.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0	0.0	51	1.8
10. 공항시설 확충 및 신공항 추진	1	3.2	269	9.6
11. 고속철도 조기 개통	0	0.0	212	7.6
12. 신항만 조기 완공	0	0.0	215	7.7
13. 항만 배후도로 건립	0	0.0	253	9.0
14. 부산항만공사(PA) 설립	0	0.0	50	1.8
15.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4	12.9	142	5.1
16.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0	0.0	53	1.9
17. 서부산 유통단지 조성	0	0.0	88	3.1
18. 선물시장 활성화	1	3.2	65	2.2
무응답	3	9.6	-	-
합 계	31	100.0	2,802	100.0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부산시의 주요 정책들 중에서 일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 정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세자유지역 확대,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 산업단지 확대 조성, 공항시설 확충 및 신공항 추진,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2.6%(7개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세자유지역 확대」 19.4%(6개사),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12.9%(4개사),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조성」과 「산업단지 확대 조성」이 각각 9.7%(3개사) 등이었다. 가중우선 순위 기준으로 보면, 「관세자유지역 확대」가 1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10.4%, 「공항시설 확충 및 신공항 추진」 9.6%, 「항만 배후도로 건립」 9.0% 등이었다.

4. 부산지역의 일본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방안

일본투자기업에 대한 부산지역의 경영환경 개선은 어느 한 부분만의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요소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시장환경부문

설문조사 결과 일본투자기업들이 부산지역에 진출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잠재력과 물류의 유리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시장잠재력의 확대는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시장환경부문에서의 경영환경 조성은 물류부문의 차별적인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류인프라의 정비 및 확대를 통해 국제물류 및 국내물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세자유지역 확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 신항만 및 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을 통해 외국기업들이 입지 할 수 있는 유리한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투자기업들은 시장환경과 관련하여 사업정보의 획득 어려움도 주요 경영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동향과약, 新시장 및 新기술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정보가 수집되고 기업들에 전달될 수 있는 사업정보교환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각 업종 협회, KOTRA, 무역협회, 韓商네트워크, 지역금융기관, 지역대학, 연구소 등 국내외에서 사업정보를 입수·전파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역기업들과 정보를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노동환경부문

노동환경은 일본투자기업에 있어 가장 큰 애로부문으로 지적되었다. 높은 임금수준과 일반적 노동인력의 수급 어려움이 주된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임금수준은 지역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은 학교, 직업훈련원,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결 가능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인력수요·공급 현황과악 시스템 구축, 학교·직업훈련원·기업간의 인력·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채용박람회 정기적 개최, 외국인노동인력 수급체제 정비, 부산인력개발원 기능 활성화 등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부동산환경부문

일본투자기업들은 부동산환경과 관련하여 높은 토지매입가격과 높은 토지 및 사무실 임차비용을 가장 주요한 경영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매매가격 및 임대비용 감면을 적극 활용하고,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공장용 부지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장 및 사무실 임대의 경우에도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예: 선개발 후임대, 표준공장 임대, 기업의 원하는 설계대로 건설 후 임대 등)하여 임대가격을 낮추고, 기업의 니즈에 맞는 공장 및 사무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금융환경부문

부산지역의 금융환경부문은 일본투자기업들이 서울·수도권에 비해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한 부문이다.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복잡한 금융기관의 이용절차 등이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총액한도자금(C2자금),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능 등을 확충하여 지원하고,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지역을 수도권에 대칭되는 금융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부산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국제금융, 국제업무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현금융단지의 조기 완공, 선물시장의 활성화, 지역 금융기관의 대형화, 지역금융혁신네트워크의 구축, 외국금융기관 본·지점 유치 등의 활성화 조치들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5) 행정서비스환경부문

부산지역 행정서비스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들은 복잡한 회사설립절차와 행정기관

의 빈번한 서류제출요구 등을 가장 큰 경영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기업 및 공장설립, 확장 등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서류처리 등 행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및 각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에 대한 官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업지역으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6) 조세환경부문

부산지역 일본투자기업들은 조세환경과 관련하여 높은 법인세율, 복잡한 세금체계, 복잡한 세무처리 절차 등을 경영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조세정책 및 조세 관련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부산시에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인세율 조정, 세금체계 단순화, 세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조세제도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세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조세행정서비스의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7) 교통환경부문

부산지역 교통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들은 복잡한 시내교통과 국제항공 노선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내교통 체증 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제항공 노선 확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체계 정비, 항만 배후도로 건설, 신공항 건설 등 공항시설의 확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8) 생활환경부문

부산지역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일본투자기업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 대상 생활 정보 제공 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일본투자기업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부산지역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외국어 전용카페 활성화, 공문서의 외국어 공용화 추진, 외국어 통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부산에서 외국어가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생활정보센터 설치, 부산시 홈페이지의 외국인생활정보 사이트 운영, 외국인 사이버 커뮤니티 조성,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생활정보를 외국인이 쉽게 획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진출한 일본투자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투자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부산지역의 경영환경을 살펴보았다.

2002년말 현재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일본투자기업은 152개사인데, 무역업종과 기타서비스업종의 기업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건당 투자규모는 425만달러로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평균투자규모인 500만달러보다 작아 소규모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대상국은 한국과 일본이며, 한국내에서는 부산과 경남,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 많았다. 부산지역에 진출한 주요 동기는 시장잠재력과 물류의 유리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투자기업들은 부산지역의 경영환경에 대해 교통환경을 제외하면 모든 부문(시장환경, 노동환경, 부동산환경, 금융환경, 행정서비스환경, 조세환경, 생활환경)에서 서울·수도권의 경영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을 3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부산지역은 약 2.5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경영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노동환경, 금융환경, 시장환경부문에서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임금수준과 노동인력의 수급 어려움, 자금조달 곤란 및 복잡한 금융기관 이용 절차, 시장규모의 협소와 사업정보 획득 어려움 등이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밖에도 높은 토지매입가격과 토지 및 사무실 임차비용, 복잡한 회사설립 절차, 행정기관의 빈번한 서류제출요구, 높은 법인세율, 복잡한 세금체계 및 세무처리 절차, 복잡한 시내교통 및 국제항공노선 부족,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 대상 생활정보 제공 부족 등도 주요 경영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경영애로요인은 비단 일본투자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혹은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영애로요인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부분만의 단편적인 개선 노력만으로는 부산지역의 일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제시된 각 부문별 개선방안들이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기획예산처,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한 국가의 지원사례와 우리의 정책방향, 2001. 11. 30.
- 2)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 활용방안, 1998. 8.
- 3) 법제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 법제처,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5) 법제처,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6) 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7) 법제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 8)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령
- 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시행규칙
- 1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 11) 부산광역시, 韓國·釜山の投資機會, 부산 홍보 팜플렛.
- 12) 부산상공회의소, 2002 釜山商工名鑑, 2001. 8.
- 13) 산업연구원, 국제직접투자와 산업구조조정, 2001. 12.
- 14) 산업연구원,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KIET산업경제, 2002. 7.
- 15) 산업연구원,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KIET 연구자료 제1호, 1996. 12.
- 16) 산업자원부, 2001년 외국인투자실적 및 2002년 전망, 2002. 3.
- 17) 산업자원부, 200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3. 1.
- 18) 산업자원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 2002. 11. 1.
- 19)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 20)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예로간담회, 2002. 10. 11.
- 21)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정책 간담회, 2002. 10. 23.
- 22)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한 입지 및 생활환경 개선대책, 2002. 10. 10.
- 23)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CEO Information, 2003. 1. 29.
- 24)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2003. 2.
- 25) 외국기업정보협의회, 2003 駐韓外國企業體總覽, 2002. 11.
- 26)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
- 27) 鄭世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촉진방안, 지방재정, 2002년 제2호.